

‘무적’ 광주 FC “딱 기다려! 1부 승격”

K리그2 16R 수원 FC에 2-0 승
펠리페·두현석 골...16경기 무패
여름·이으뜸·정영충·윌리안 등
‘공격루트 다변화’ 무패 원동력

더욱 강해진 광주FC, 막을 자가 없다.
프로축구 광주는 지난 24일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열린 2019K리그2 16라운드 수원FC와의 원정 경기에서 2-0 승리를 거뒀다.

개막 후 16경기에서 패배를 기록하지 않은 광주는 10승 6무(승점 34)의 전적을 만들면서 1위 독주에 속도를 냈다. 앞서 안산 그리너스와 16라운드를 치른 2위 부산아이파크(9승 5무 2패·승점 32)가 0-0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1위 광주와 격차는 4점 차까지 벌어졌다.

초반 광주에 쏠렸던 우려를 지워낸 무패행진이라는 점에서 최근 행보는 더 의미 있다.

지난 시즌 ‘해결사’ 역할을 했던 나상호가 일본 무대로 자리를 옮기면서 올 시즌 광주의 화력에는 물음표가 그려졌었다.

하지만 뚜껑을 연 2019시즌에는 새로운 해결사 펠리페가 있었다.

펠리페는 지난 3월 3일 원정경기로 치러진 서울 이랜드와의 시즌 개막전에서 전반 4분 만에 첫 골을 넣으면서 2-0 승리의 주인공이 됐다.

3월 10일 아산무궁화와의 홈개막전에서 헤트릭을 기록한 펠리페는 4월까지 8경기에서 9골을 넣으며 팀 공격(16득점)을 주도했다.

하지만 광주는 펠리페에 치중한 공격 탓에 ‘공격 다변화’라는 고민에 빠졌다. 지난 5월 광주는 자의 반 타의 반 공격력 테스트를 받게 됐다.

펠리페가 경고 누적과 부상으로 5월 12일 부산 원정을 제외한 4경기에 결장하게 되면서 공격진에 변화가 생긴 것이다. 우려와 달리 광주는 펠리페가 빠진 4경기에서 3승 1무의 전적을 냈다.

결과도 결과지만 내용이 좋았다. 5월 1일 부천전에서 여름이 경기 종료 직전 결승골을 넣으며 1-0 승리를 견인했고, 5월 4일 전남과의 홈경기에서는 이으뜸이 환상적인 프리킥골을 터트렸고 정영충의 페널티킥 골도 나왔다.

5월 20일 서울이랜드와의 홈경기에서는 무려 3골이 기록됐다. 김경환의 시즌 마수같이 골과 함께 윌리안, 여름이 득점에 성공하면서 펠리페의



광주FC가 지난 23일 수원FC와의 K리그2 16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2-0으로 승리하면서 16경기 연속 무패행진 속에 2위 부산아이파크와의 격차를 4점 차로 벌렸다. 사진은 상대의 자책골을 이끌어낸 두현석(왼쪽)과 시즌 13호골에 성공한 펠리페.

공백을 지웠다.

1위 독주의 키로 꼽히던 공격 다변화에 성공한 광주는 6월에도 그 기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으뜸이 6월 2일 안양 원정에서 중거리 프리킥 골로 결승골의 주인공이 됐고, 6월 16일 부천과의 홈경기에서도 프리킥골에 성공하면서 4-1 대승을

이끌었다. 윌리안도 이 경기에서 시즌 두 번째 골을 넣으며 광주 공격에 무게를 더했다.

24일 경기에서는 두현석이 승리의 발판을 놓았다.

0-0으로 맞선 후반 19분 두현석의 강한 슈팅이 골대를 맞고 튀어나온 뒤, 상대 골키퍼 박형순의

머리에 맞고 골문으로 빨려 들어갔다. 16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후반 추가 시간에는 펠리페가 원발로 수원의 골망을 흔들면서, 광주의 2-0승리가 기록됐다.

다양해진 득점 루트 속 펠리페의 건재도 반갑다. 펠리페는 15라운드 부천전 멀티골에 이어 두

경기 연속 골에 성공하는 등 13득점으로 K리그2 득점 1위 자리를 굳게 지키고 있다. 9골을 넣은 부산 이창협이 그 뒤를 쫓고 있다.

광주가 빈틈없는 로테이션을 통해 승격을 향한 거침없는 질주를 이어가고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EPL 최고 아시아 선수는 누구?

EPL 사무국 팬 투표...박지성·손흥민·기성용 후보 올라



박지성

손흥민

기성용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가 물었다. “박지성이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고의 아시아 선수인가”라고.

EPL 사무국은 24일(현지시간) 프리미어리그의 역대 아시아 최고 선수는 누구인지를 묻는 팬 투표에 들어갔다.

후보는 박지성, 기성용, 손흥민과 일본의 가가와 신지와 오카자키 신지 등 5명이다.

제목부터 ‘박지성이 역대 최고의 아시아 선수냐’고 뽑은 만큼 박지성이 맨 먼저 언급됐다.

EPL 사무국은 박지성에 대해 “올드 트래퍼드(맨유의 홈구장)에서 7시즌을 보내면서 프리미어리그와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경험한 최초의 아시아 선수다”면서 “맨유와 퀸즈파크 레인저스에서 통산 154경기(19골 21어시스트)를 뛰면서 포기하지 않는 자세로 전 세계 팬들의 사랑을 받았다”고 소개했다.

기성용에 대해서는 스완지시티, 선덜랜드에 이

어 뉴캐슬에서 통산 184경기(15골 9어시스트)를 뛰어 한국 선수로는 프리미어리그 최다 출전 기록을 갖고 있다고 설명한 뒤 “2019-2020시즌은 프리미어리그에서 그의 성공적인 8번째 시즌이 될 것이다”라고 기대했다.

토트넘에서만 프리미어리그 통산 130경기에 출전해 42골 19어시스트를 기록한 손흥민에 대해서는 “프리미어리그에서 아시아 선수 최다 득점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2016년 9월에 아시아 선수 최초로 이탈리아의 선수상을 받았고, 최근 세 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을 올렸다”고 활약상을 열거했다.

가가와(38경기 6골 6어시스트)는 맨유 입단 및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경험한 첫 번째 일본인 선수이자 헤트릭을 기록한 최초의 아시아 선수, 오카자키(114경기 14골 4어시스트)는 레스터시티 입단 첫해인 2015-2016시즌에 구단 역사상 132년 만의 우승으로 프리미어리그의 두 번째 일본인 챔피언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LG 보약’ 먹은 호랑이들 원정 승률 높이기

KIA 지난주 5연패 끊고 위닝시리즈
투·타 살아나며 분위기 상승
올 시즌 원정 승률 0.361 ‘저조’
오늘부터 키움·KT전 연승 기대



‘호랑이 군단’이 수도권 투어에서 원정 승률 높이에 나선다.

KIA 타이거즈는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원정 약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시즌 KIA는 안방에서 43승 29패를 기록하면서 0.597의 홈 승률을 남겼다. 하지만 원정길에서는 27번 이기는 데 그치면서 27승 45패로, 0.375의 원정승률을 기록했다.

올 시즌에도 비슷한 양상이다. KIA는 지난 21일 SK전까지 안방에서 치른 39경기에서 19승 20패로 0.487의 승률을 기록했다.

원정 승률은 또 떨어진다. KIA는 25일 키움과의 경기 전까지 13승 1무 23패의 전적으로, 0.361의 원정 승률을 냈다.

앞선 주말 LG와 잠실 경기에서 위닝시리즈를 장식하면서 그나마 원정 승률이 조금 상승했다.

KIA가 올 시즌 13차례의 원정 시리즈에서 우위를 점한 경우는 4차례에 불과하다.

4월 12일 시작된 문학원정에서 2승 1무로 가장 좋은 성적을 냈지만, 사직 원정 스윙패를 포함 이어진 5차례의 원정길에서 3승 11패의 성적표를 작성했다.

이후 두 번의 대전 원정에서 연달아 위닝시리즈에 성공했지만, 6월 창원과 사직 원정에서는 5전 2패를 기록했다.



양현종



박찬호

특히 올 시즌 사직 원정에서는 5전 전패이고 창원에서도 1승 4패로 부진했다.

KIA는 지난 21일 LG전을 시작으로 수도권 9연전 일정에 돌입했다.

그리고 LG전 5연패에서 벗어난 KIA는 수도권 9연전의 첫 무대였던 잠실에서 기분 좋은 위닝시리즈를 만들었다.

상승세를 탄 KIA는 고척과 수원 승을 뒤집기라는 또 다른 숙제를 풀게 됐다.

앞선 원정에서는 각각 1승 2패로 열세를 보였다. ‘에이스’ 양현종도 고척(4월 26일)과 수원(3월 29

일)에서 모두 패전 투수가 되기도 했다. 특히 고척 경기에서는 4.1이닝 8피안타 5사사구 5탈삼진 8실점(7자책점)의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앞선 원정 때와는 분위기가 다르다. 초반 부진을 털어낸 양현종은 팀은 물론 리그를 대표하는 투수로의 면모를 이어가고 있고, 답답했던 타선도 신구조화를 이뤄가고 있는 모습이다.

잠실에서 반전을 이룬 KIA가 분위기를 살려 수도권 9연전에서 위닝시리즈를 이어갈 수 있을지 기대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